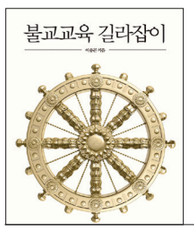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9~12/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7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스님	민족사
4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스님/정원규	불광출판사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책세상

현대교육 문제의 대안은 '불교교육'



불교교육 길라잡이
이송곤 지음
운주사 펴냄 / 1만6천원

불교의 교육학적 가치 조명
불교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
이론체계 전개과정 등 주목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의 교육학적 가치를 조명한 신간이 나왔다.

불교교육학은 전반적으로 불교의 교육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교의 교학과 불교사에 나타나 있는 교육철학 또는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불교적 교사와 불교적 학생 사이에 전개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등을 하는 것을 불교교육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교육학은 제도권의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과정과 함께 전개되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서양 학문의 토대 위에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교교육학' 과 '교육학' 은 외형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자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하겠다. 전자는 출세간적 학문에 속해 있고, 후자는 세속적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교교육학은 미래 불교교육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교육학' 은 불교학인가, 교육학인가? 저자는 불교학을 보편성으로, 교육학을 특수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불교교육학의 범주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불교 역사 속에서 불교교육의 교육적 특성과 이론체계, 그리고 그 전개과정 등을 톺아보고 있다. 책은 2600여 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시대별 혹은 종파별로 진행된 가르침의 전승과정을 응축(공통 핵심 가르침)과 발현(핵심 가르침의 시대별 전개)의 두 축으로 설명한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불교교육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음을 닦음으로써 깨달음을 향해 변화해 가는 인간의 형성적인 측면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수행이지만, 마음을 닦음으로써 인격에 변화가 있게 되고 종국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불교는 '교육' 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장점이 있는 불교의 교육에 관해 책은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초기불교, 남방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중관과 유식, 그리고 천태의 교육과정, 불성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의미, 종교교육과정으로서의 불교, 마지막으로 선(禪)의 교육과정 등을 주제로 하여 전체 흐름과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교교육이란 무엇인지, 불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어떠한지, 불교교육이 왜 필요한지? 등 불교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역사적으로 전개된 교학에 나타나 있는 불교교육의 인간 형성 측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교육과 종교로서의 불교와의 접점에 서있는 불교교육에 관해,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불교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와 그 중요성 등에 대해서 알 게 된다.

한국의 응용불교학에 대한 연구는 종교교육학회와 교육학회 등을 중심으로 학문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교육학 저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불교교육학' 을 태동하게 하고 정초(定礎)한 박선영 교수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종교교육학회와 교육학회 등을 중심으로 불교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내고 〈불교와 교육〉(1982), 〈불교와 교육사회〉(1983) 등을 펴냈으나 이후 불교교육에 관한 저서는 시중에서 볼 수 없었다. 이후 저자는 2018년 9월 초기불교와 테라와다 불교의 정통 논서인 〈위숫디막가(淸淨道論)〉을 바탕으로 한 〈불교교육론〉을 펴낸 바 있다.

저자는 "서양사의 토대 속에서만 교육사상이 정립되고 이러한 교육사상이 우리의 교육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융합적으로 만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교교육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교육 실천의 현장에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며 "불교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지혜의 완성을 통한 깨달음, 즉 지혜를 닦음으로써 최상의 인격완성과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온전히 발현시켜준다는 점에서 현대교육 혹은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성적지상주의, 물질주의 등의 문제들에 대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 이송곤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국대 강사를 역임하였다.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 PD로 입사, 청주불교방송 PD를 거쳤으며, 현재 불교방송에 재직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 한국불교학회 회원, 종교교육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발표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불교교육론-초기불교와 남방 테라바다불교의 교육이론〉이 있으며, 논문으로 〈불교경전 이야기의 내러티브 학습방법과 그 교육적 의의〉, 〈듀이의 종교관의 측면에서 본 2015 개정교육과정과 불교 종교교육의 과제〉, 〈'청정도론' 의 칠청정 성립의 의의와 점진적 수행체계로서의 특성〉, 〈칠청정의 지와 견에 의한 청정과 유부의 견도수도 무학도의 비교 고찰〉, 〈천태교판에 대한 새로운 이해-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적 고찰〉 등이 있다.


운문사 승가대학(강원)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텅 빈 가득함
서해명 지음 / 올리브나무 펴냄 / 1만5천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것저것 비교 분석함이 없는 생각의 비무장지대에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염려할 필요 없이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는 조금은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텅 빈 속성을 깨달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스러운 사랑의 세계가 끝도 없이 펼쳐짐을 이야기하는 서해명의 첫 에세이집이다.

2500년 전 어느 날 아침, 설법을 듣고자 모여든 청중들 앞에서 부처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은 잠자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다. 스승의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가운데 가섭 존자만이 미소로 화답함으로써 진리의 법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게 된다. 그날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임으로써 전하고자 했던 '말없는 말' 은 무엇이었을까? 연꽃 한 송이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던 가섭 존자가 연꽃 너머에서 보고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가섭 존자의 눈과 붓다의 눈을 잇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 깨달은 이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인 이 사건은 비단 2천 5백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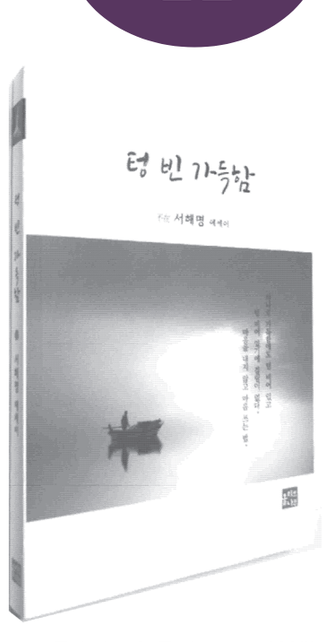
달을 본 사람은 달을 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달을 본' 그 일이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각자(覺者)는 진정한 각자일수록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노릇을 기꺼이 자처한다. '손가락' 노릇을 하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 부처님이 그랬고, 저자 서해명 역시 그렇다. 책은 서해명이 여러 공부를 통해 깨달은, 서해명이 본 '달' 이야기다.

세상의 모든 스승들이 애써 가리켜 보이는 '달' 은 무엇일까. 그것은 허공 저 멀리에 떠 있는 달이 아니다. 진리의 달, 우리가 영원히 회향해야 할 달은 바로 '우리 자신' 이라는 달이다.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저 멀리 떠 있는 진리의 달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각자 '마음의 달' 을 보라고 기꺼이 손가락을 들어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서해명이 이야기하는 '텅 빈 가득함' 그것은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가리켜 보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가 가리켜 보이는 "하나로 가득함에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기에 걸림이 없는 삶"은 우리가 잘만 받아들이고 용해하여 쓰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괴로움의 근거를 지우는 지우개가 될 수 있고, 슬픔을 녹이는 위안의 영약이 될 수도 있다.

저자 서해명은 30여 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다. 종교의 도그마를 뛰어넘는 진리를 찾아 헤매던 중 에고의 칸막이가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모두가 하나인 친밀하고 황홀한 사랑의 장이 펼쳐지는 세계' 를 보게 되었다. 두 권의 시집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와 〈나 없음의 경이〉를 출간했다. 개체성의 감옥에서 풀려나 한없는 자유를 만끽하고 걸림이 없이 모두를 받아주는 사랑의 마당에서 사는 법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소망한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나'라고 하는 몸과 맘의 허상을 떠나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무아지경의 황홀한 세상 이야기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텅 빈 가득함
不在 **서해명** 에세이

하나로 가득함에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기에 걸림이 없다.
마음을 내지 않고 마음 쓰는 법.





서해명 제1시집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
"나"라는 에고의 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의 이야기— 장엄하고 친밀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절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서해명 제2시집
'나 없음'의 경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해탈한 불교인'이 결혼하면 어떤 옥동자가 태어날까? 일찍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터를 닦은 서해명은 깨침의 종교인 불교를 그리스도교에 접목시킴으로써 '해탈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경의 말씀들과 예수의 비유들이 갖는 참 의미를 발굴하고 확대 증폭하여 인간존재론의 21세기적 비경을 제시, 독자를 무아지경으로 끌어간다.

올리브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10, 705-101
Tel. 070-8274-1226, 010-7755-2261 FAX. 031-629-698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상담 및 강연 요청 ‖ 서해명 010-7770-2644